

#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 A Meta-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Psychological Burn-ou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Dong-Kyu Moon

Child Care Education of Sahn-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하여 지난 20여년 간 국내에서 연구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심리적소진 관련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발요인과 억제요인들의 전체효과크기와 요인군, 하부요인, 정적·부적효과요인 모두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둘째, 유발요인군은 큰효과크기를 가진 업무상문제요인군이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부정적관계요인군 보다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셋째, 부정적관계요인군의 하부요인 중, 큰효과크기를 가진 원장과의 부정적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부요인이 중간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넷째, 업무상문제요인군의 하부요인은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그 다음 역할갈등, 업무과다, 역할모호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억제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요인군이 가장 큰효과크기를 그 다음 조직지원요인군, 교사효능감요인군, 사회적지지요인군, 감정노동요인군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억제요인군 중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감정노동요인군의 내면적, 자연적, 표면적행동요인, 조직지원요인군의 하부요인인 조직지원요인과 교사효능감요인군의 일반교사효능감요인, 사회적지지의요인군의 직장 내·외요인, 사회적지지전체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군이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일곱째, 효과요인에 있어, 직무만족, 우울, 이직의도요인은 모두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sizes of psychological burnout-related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by applying meta - analysis focusing on master '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for the past 20 yea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effect size, the factor group, the sub-factor,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factors of the inducing and inhibiting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size. Second, in terms of inducing factors, the task problem group showed a larger effect size than the negative relationship group. Third, among the lower factor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group, all the sub factors exclud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director, effect size showed a medium effect size. Fourth, task stress showed the greatest effect size among the sub factors of the task factor group, followed by role conflict, task overload, and role ambiguity. Fifth, resilience showed the greatest effect size among the inhibition factors, followed by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 teacher efficacy factor, social support factor, and emotional factor. Sixth, all sub factors of the emotional labor factor group,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 of the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 group, general teacher efficacy factor of the teacher efficacy factor group, and all sub factors of social support factor Medium effect size. In addition, the lower factor of all the other factors showed a large effect size. Seventh, of the effect factors, job satisfaction factor, depression factor, and turnover intention factor all showed a large effect size.

**Key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s, Nuri curriculum, Burn-out, Psychological Burn-out, Meta-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Moon(Sahn-yook Health Univ.)

Tel: +82-10-6210-8670 email: moon3636@shu.ac.kr

Received July 31, 2018

Revised August 16,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 1. 서론

적정 수준의 출산율 유지는 한 국가로서 안정된 사회 환경 조성 및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고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으로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1.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3차(2016-2020) 저출산 대응책을 내놓아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족의 출산을 제고, 출생·양육 지원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특히, 최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3, 4],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출산 후,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시 되며, 특히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초적인 차원을 넘어 유아, 부모 등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유아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적합한 발달을 돕는 유아교사로서의 책무와 역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6]. 하지만 유아교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무환경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낮은 보수와 처우를 받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수행과 학부모의 과도한 역할 기대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겪고 있다[7]. 이러한 경험은 유아교사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낮출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 교사로서의 낮은 만족감과 이직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8, 9], 교직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 또한 식어 버리는 심리적 소진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소진(psychological burnout)은 유아교사와 같은 대인관계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경험할 확률이 높는데[10], 이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되며, 따라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이직 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11].

유아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역할 맡고 있는 유아교사의 소진은 당사자인 유아교사 뿐 아니라 유아와 부모, 정부시책 차질에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여년 간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2].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소진을 유발하는 유발요인과 소진을 억제하는 억제요인 그리고 소진에 따른 부정·정적효과요인으로 구분지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유발요인은 부정적 관계적 측면으로서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 원장과의 부정적 관계,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유아와의 부정적 관계 등이 주요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3, 14, 15], 업무상문제 측면에서 업무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그리고 포괄적인요인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주요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6, 17, 18].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억제요인으로는 크게 보아 감정노동, 교사효능감, 사회적지지, 조직지원, 회복탄력성요인 등으로 구분지어 보고되고 있는데, 감정노동요인은 내면적 행동, 자연적 행동, 표면적 행동요인으로 구분되어 보고되고[19, 20, 21], 회복탄력성요인은 긍정적 태도, 대인관계 능력, 자기조절 능력, 포괄적으로 살핀 회복탄력성요인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17, 18, 22]. 조직지원요인은 도전기회, 물질적 지원, 효과적 시간운영, 조직지원, 행정적 지원요인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6, 23, 24], 교사효능감요인으로는 개인적 교사효능감, 일반적 교사효능감, 포괄적인요인으로 교사효능감전체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5, 26, 27]. 또한 사회적지지요인은 직장 내 사회적지지와 직장 외 사회적지지 그리고 포괄적으로 사회적지지전체요인으로 구분되어 보고되고 있다[28, 29, 30].

선행된 연구 가운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효과요인은 소진에 부정 영향을 받는 효과요인으로 직무만족요인이 주요 효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8, 31, 32], 소진에 정적 영향을 받는 효과요인으로 우울과 이직의도가 주요 효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5, 28, 29].

이와 같이 보고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유아교사의 소진과 관련한 요인들을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몇몇 요인을 선별하여 살핀 단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소진과 관련하여 선택된 요인들의 효과성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면, 각기 다른 관점과 이론적 틀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요인을 살펴보고 있어 영향력의 실제크기를 밝혀내는 데 제한점이 있다[33].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

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추출된 계량적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실증적 지식을 산출하는 통계방법으로[34], 연구자의 편견이나 특정 연구의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는 방법이다[35].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된 황은경[36]의 연구를 기점으로 2017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중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메타분석에 적용하므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 관련요인들 가운데 억제요인, 유발요인 그리고 정적·부적효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유발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어떠한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부정적 관계요인과 업무상 문제요인 간의 효과크기 차이는 어떠한가? 또한 부정적 관계요인과 업무상 문제요인의 하부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억제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그리고 억제요인으로 분류된 감정노동, 교사효능감, 사회적지지, 조직지원, 회복탄력성 요인 간의 효과크기 차이는 어떠한가? 또한 주된 요인으로 분류된 각각의 요인의 하부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정적효과요인과 부적효과요인의 전체효과크기와 하부변인 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므로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계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요인들이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을 유발하고 억제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본 연구결과에 따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며, 관련 후속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선행연구 고찰

### 2.1 심리적소진의 개념

심리적소진(Psychological burnout)이란 대인(對人) 서비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기력이 고갈된 상태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서비스 대상에 대한 무관심 또는 비인격화 된 행동을 보이며,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 심리적 증후군을 의미한다[37, 38].

심리적소진에 대한 초기연구는 정신과 병원의 간호사, 의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Maslach와 Jackson[10]에 의해 심리적 측정도구 개발이 이뤄진 후부터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11]. Maslach와 Jackson[39]이 개발한 심리적소진 도구는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로 국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소진에 관한 연구들에서 90%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11], 지난 20년간 유아교사의 소진과 관련한 연구들 중, 초기 연구로서 황은경[40]의 연구와 2000년대 접어들어 서지영[14], 장혜주[41] 등의 연구 그리고 최근 연구인 강민정 등[8]의 연구 등 대다수의 연구가 유아교사의 소진 경험으로서 육체적 피로감을 의미하는 정서적 피로감, 주변 사람에 대해 취하는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비인간화,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개인적 성취감 상실을 심리적 소진의 주된 요인으로 본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또한 이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2.2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보아 유아교사의 소진을 유발하는 유발요인과 소진을 억제하는 억제요인 그리고 소진에 따른 부적효과요인과 정적효과요인으로 구분지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유발요인은 부정적 관계적 측면으로서 동료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유아와의 관계 등이 주요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강민정 등[8]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하여 동료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소연[24]의 연구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원장과의 관계가 동료와의 관계보다 다소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문제 측면에서는 업무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그리고 포괄적인 요인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주요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권나연과 이화영[26]은 업무상 문제요인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업무과다를 주요요인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역할갈등과 심리적소진 간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고, 김정숙 등[42]은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권정윤 등[16]의 연구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역할갈등과 업무과다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유발요인에 있어 부정적 관계 측면과 업무상 문제 측면에서 각각의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연구 간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억제요인으로는 크게 보아 감정노동, 교사효능감, 사회적지지, 조직지원, 회복탄력성요인으로 구분지어 보고되고 있는데, 선행된 연구 결과, 감정노동요인에 있어 손익교[19]의 연구는 표면적행동과 자연적행동이 상대적으로 내면적 행동보다 심리적소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유진[21]의 연구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사효능감에 있어서 권나연과 이화영[26]의 연구와 이경미[27], 우수경과 김기에 등[27]의 연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개인적효능감이 일반적 교사효능감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에 있어서 정혜영과 이경화[29]의 연구는 직장 외 사회적지지가 직장 내 사회적 지지보다 심리적소진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김정숙 등[42], 배영선 등[30]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 사회적 지지가 직장 외 사회적 지지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조직지원에 있어서 김소연[24]과 장혜주[41]의 연구에서는 시간운영요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행정적지원요인에 있어서는 김소연[24]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장혜주[41]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도 구효진과 김민영[17]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관련성을

보인 반면, 우수경과 김기에[25]의 연구에서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자기조절능력이 대인관계능력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선행된 연구 가운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억제요인에 있어 각각의 연구 간 영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효과요인은 소진에 부적 영향을 받는 효과요인으로 직무만족요인이 주요 효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진에 정적 영향을 받는 효과요인으로 우울과 이직의도요인이 주요 효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선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권화숙과 김이영[28], 김필연과 조성제[31], 최형성[43]의 연구 등은 직무만족이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부적효과요인으로 보고, 연구간 효과크기 차이가 있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직의도요인을 정적효과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권화숙과 김이영외[28], 김의중[32], 이경민과 박주연[9]의 연구와 우울을 정적효과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정혜영과 이경화[29], 홍길희와 정혜진[15] 등의 연구 역시 각각의 연구에 있어 서로 다른 크기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연구관점에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및 분석

##### 3.1.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서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서 만3세에서 만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검색으로 유아교사의 소진에 대한 최초의 연구[36]를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발표된 국내의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유아’, ‘아동’,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누리교사’, ‘소진’, 등을 key word로 사용해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

보(KSI), 국회도서관 등이 검색엔진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1차 검색된 자료는 석·박사 논문이 84편, 학술지 논문이 141편 총 225편이었다. 셋째, 1차 검색된 225편의 연구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준 즉, 수량적인 형태로 제시된 연구 중 관계성을 검증한 자료, 독립요인과 종속요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관계( $r$ )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자료, 효과크기 변환이 가능한 사례수( $N$ )와 상관관계치( $r$ )가 있는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석·박사 논문 19편, 학술지 21편으로 총 40편 선별되었다. 또한 석·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게재 된 7편은 본 연구 논문인 석·박사 논문 1편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은 석·박사 논문 19편, 학술지 14편으로 총 33편이다.

### 3.1.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선행된 연구[11, 44, 45]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소진을 유발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으로 구분한 후, 소진의 영향으로서 직무만족을 부적 효과요인, 이직의도와 우울을 정적효과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MS Excel 2007로 코딩하였으며, 코딩 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포함, 해당 전문가 3명이 사전 협의 없이 각각의 연구물을 선정하여 코딩하고, 코딩 후 최종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불일치된 사례는 합의를 통해 바로잡았다.

### 3.1.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최근 메타분석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선택은 동질성검사와 이질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무선효과모형(Random)을 선택하여 분석 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 해석은 95%신뢰 구간을 산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46]의 표준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기준을 따랐다. 따라서 .10이하는 작은효과크기로, .10부터 .40이하는 중간효과크기 .40이상은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출판편의(Publication bias)검증은 funnel plot검사를 통해 시각적으로 1차 분석하고 그 후, Duval과

Tweedie[47]이 제안한 Trim-and-Fill 검사 그리고 Orwin[48]의 안전성 계수 검사( $Nfs$ )를 통해 최종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의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figure 1>). Trim-and-Fill 검사결과 8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 전 효과크기(0.434)와 추가 후 효과크기(0.487) 간의 큰 차이가 없어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Table 1>), Orwin[48]의 안전성 계수 검증( $Nfs$ ) 결과는 164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ES = 0.434$ )가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164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유발요인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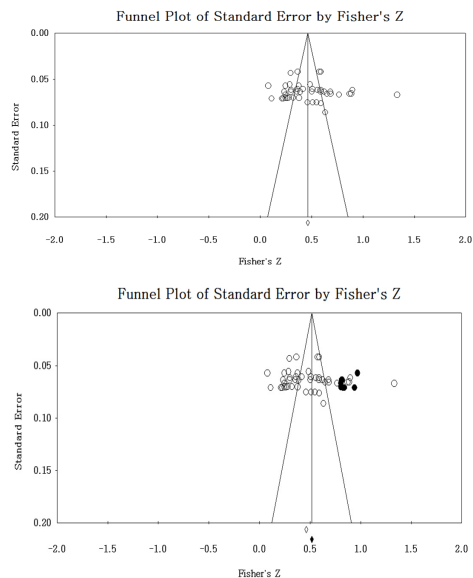


Fig. 1. Publication Bias

#### 4.1.1 유발요인의 전체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0.43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377, 상한값 0.488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 4.1.2 유발요인군 별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군인 부정적관계요인군과 업무상문제요인군은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관계요인군은 0.375로 .10 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업무상문제요인군은 .40보다 큰 0.531로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군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Q_b = 8.395$ ). 따라서 업무상문제요인군이 부정적관계요인군보다 상대적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 4.1.3 부정적관계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군 중 부정적관계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원장과의 부정적 관계가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외 요인들은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관계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1.124$ ).

#### 4.1.4 업무상문제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유발요인군 중 업무상문제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역할모호가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외 요인들은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업무상문제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Q_b = 23.270$ ). 따라서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업무스트레스(0.697)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보였고, 그 다음 역할갈등(0.461), 업무과다(0.429), 역할모호(0.327) 순으로 타났다.

### 4.2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의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 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figure 2>). Trim-and-Fill 검사결과 7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 전 효과크기(-0.442)와 추가 후 효과크기(-0.468) 간의 큰 차이가 없어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Table 6>), Orwin[48]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286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ES = -0.442$ )가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286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억제요인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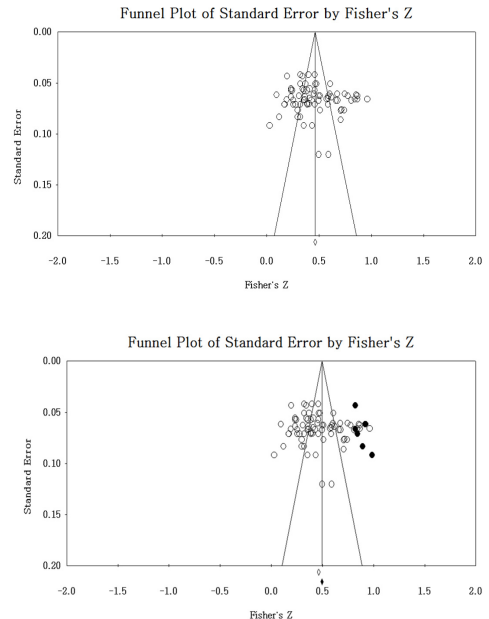


Fig. 2. Publication Bias

#### 4.2.1 억제요인의 전체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7>에서 보는바와 같이 -0.44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478, 상한값 -0.405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된다.

#### 4.2.2 억제요인군 별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요인군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감정노동요인군과 사회적지지요인군은 .10 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그 외 모든 요인군은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Q_b = 13.627$ ). 따라서 요인군 간 효과크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요인군(-0.505)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다음 조직지원요인군(-0.471), 교사효능감요인군(-0.432), 사회적지지요인군(-0.355), 감정노동요인군(-0.330) 순으로 나타났다.

#### 4.2.3 감정노동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중 감정노동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모든 요인군이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였다.

감정노동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1.432$ ).

#### 4.2.4 회복탄력성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중 회복탄력성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모든 요인군이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7.794$ ).

#### 4.2.5 조직지원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중 조직지원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조직지원요인은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외 요인들은 모두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조직지원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1.258$ ).

#### 4.2.6 교사효능감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중 교사효능감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일반교사효능감은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외 개인적교사효능감요인과 교사효능감전체요인은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교사효능감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2.882$ ).

#### 4.2.7 사회적지지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중 사회적지지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모든 요인이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였다.

사회적지지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0.295$ ).

#### 4.3 부적효과요인의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부적효과요인인 직무만족효인의 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figure 3>).

Trim-and-Fill 검사결과 1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 전 효과크기(-0.417)와 추가 후 효과크기(-0.445) 간의 큰 차이가 없어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Table 14>), Orwin[48]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25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ES = -0.417$ )가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25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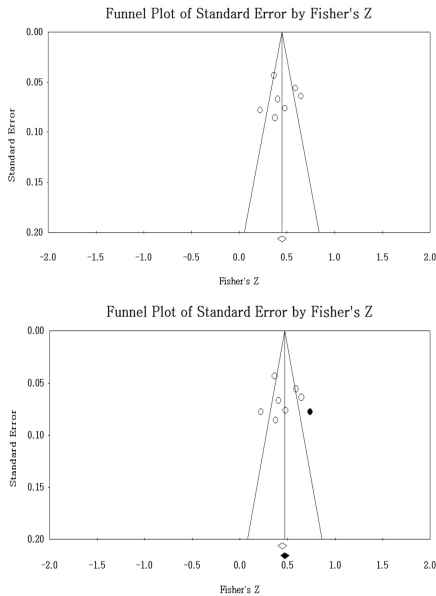


Fig. 3. Publication Bias

직무만족효과요인의 효과크기 값은 <Table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0.417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326, 상한값 0.501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 4.4 정적효과요인의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정적효과요인인 우울과 이직의도요인의 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 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figure 4>). Trim-and-Fill 검사결과 차이가 없어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Table 16>), Orwin[48]의 안전성 계수 검

증(Nfs) 결과는 31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ES = 0.492$ )가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31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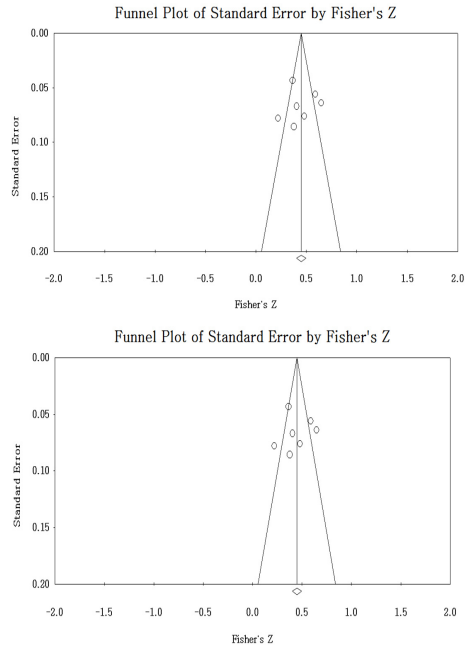


Fig. 4. Publication Bias

#### 4.4.1 정적효과요인의 전체효과크기

정적효과요인의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0.49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416, 상한값 0.561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 4.4.2 정적효과요인 별 효과크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정적효과요인인 우울과 이직의도의 효과크기는 <Table 18>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요인 모두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우울과 이직의도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_b = 1.617$ ).



**Table 1.**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0.434	0.376	0.488	629.587
Adjusted values	8	0.487	0.426	0.426	895.015

**Table 2.** Total effect size of inducing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Inducing factors	45	0.434	0.377	0.488	629.588	44	0.000	93.011

\*\*\*p<.001

**Table 3.** Each effect size of the inducing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Negative relationship	29	0.375	0.304	0.441	8.395	1	0.004
Problems in the job	16	0.531	0.450	0.603			

\*\*p<.01

**Table 4.**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Relationship with peers	10	0.366	0.256	0.466	1.124	3	0.771
Relationship with Director	8	0.406	0.286	0.513			
Relationship with Parents	6	0.399	0.260	0.522			
Relationship with infants	5	0.310	0.146	0.457			

\*p<.05

**Table 5.**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Group with problem in job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Overwork	4	0.429	0.280	0.558	23.270	3	0.000
Role conflict	3	0.461	0.293	0.601			
Role ambiguity	3	0.327	0.142	0.490			
Job stress	6	0.697	0.616	0.763			

\*\*\*p<.001

**Table 6.**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0.442	-0.478	-0.405	799.669
Adjusted values	7	-0.468	-0.505	-0.430	1046.082

**Table 7.** Total effect size of inhibiting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Inhibiting factors	78	-0.442	-0.478	-0.405	799.669	77	0.000	90.371

\*\*\*p<.001

**Table 8.** Each effect size of the inhibiting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Emotional labor	12	-0.330	-0.427	-0.225	13.627	4	0.009
Teacher efficacy	10	-0.432	-0.525	-0.328			
Social support	12	-0.355	-0.451	-0.251			
Organizational Support	16	-0.471	-0.542	-0.393			
Resilience	28	-0.505	-0.557	-0.448			

\*\*p<.01

**Table 9.**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Emotional lab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Internal behavior	4	-0.389	-0.530	-0.226	1.432	2	0.489
Natural behavior	4	-0.346	-0.494	-0.179			
Superficial behavior	4	-0.252	-0.412	-0.077			

\*p<.05

**Table 10.**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resilience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Positive attitude	7	-0.507	-0.602	-0.397	7.794	3	0.05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7	-0.467	-0.569	-0.351			
Self-regulation ability	7	-0.418	-0.526	-0.298			
Resilience All	7	-0.613	-0.693	-0.518			

\*p<.05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중 메타분석에 적합한 33편의 논문을 채택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하여 선행된 메타분석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초, 중, 고등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메타분석 한 이영만[11]의 연구와 어린이집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김안나[12]의 연구 결과 그리고 대인(對人) 서비스 직업 종사자와 관련하여 메타분석 한 노필순[49] 등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 관련 유발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95%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효과크기는 0.434로서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 간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유발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시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이영만[11]의 연구에서 유치원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효과크기가 .491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김안나[12]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 위험변인과 직무특성 위험변인이 각각 .319, .338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대상이 유사한 이영만[11]의 연구 결과와 달리 김안나[12]의 연구는 만0세에서 만2세를 담당하는 영아교사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와 대상선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 관련 유발요인군인 부정적관계요인군과 업무상문제요인군은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관계요인군(0.375)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업무상문제요인군(0.531)은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발요인군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상문제요인군이 부정적관계요인군보다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만[11]의 연구에서 업무상문제요인인

직무스트레스, 업무부담요인 효과크기가 각각 .559, .536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며, 김안나[12]의 연구에서 업무과중, 직무스트레스요인의 효과크기가 각각 .504, .412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된다.

셋째, 부정적관계요인군의 하부요인은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원장과의 부정적 관계(0.406)가 큰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외 부모와의 부정적관계(0.399), 동료와의 부정적관계(0.366), 유아와의 부정적관계 요인(0.310)들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메타분석 한 문동규[50]의 연구에서 원장과의 관계요인의 효과크기(.908)가 큰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동료와의 관계(.222), 학부모와의 관계(.060)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결되는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리[29, 53], 직장 내 동료와 아동,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하여 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넷째, 업무상문제요인군의 하부요인은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역할모호요인(0.327)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외 역할갈등(0.461), 업무과다(0.429), 업무스트레스요인(0.697)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문제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그 다음 역할갈등, 업무과다, 역할모호 순으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상스트레스 요인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데,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52, 53], 특히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52].

다섯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 전체효과크기는 95%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는  $-0.442$ 로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큰효과크기에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만[11]의 연구에서 유치원교사의 소진과 관련 된 보호요인의 효과크기가  $-0.413$ 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지난 20여년 간 유

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억제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억제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모든 요인군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감정노동요인군과 사회적지지요인군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그 외 모든 요인군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 관련 억제요인군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요인군이 가장 큰효과크기를 그 다음 조직지원요인군, 교사효능감요인군, 사회적지지요인군, 감정노동요인군 순으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억제요인군에 있어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히,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에서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주변사람과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일곱째, 심리적소진 관련 억제요인군 중 감정노동요인군, 회복탄력성요인군, 조직지원요인군, 교사효능감요인군, 사회적지지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감정노동요인군의 내면적, 자연적, 표면적행동요인, 조직지원요인군의 하부요인인 조직지원요인과 교사효능감요인군의 일반교사효능감요인, 사회적지지의요인군의 직장 내-외요인, 사회적지지전체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군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영만[11]의 연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안나[12]의 연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노필순[49] 등의 연구에서 선별하여 제시된 하부요인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부요인들이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대인(對人) 관련 서비스 직종과 유사하게 유아교사의 소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열 두번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관련 부적효과요인

인 직무만족효과요인의 효과크기는 95%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효과크기는  $-0.417$ 로 Cohen[46]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영만[11]의 연구에서 직무만족효과요인이  $-0.549$ 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안나[12]의 연구결과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노필순[49]의 연구결과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다소차이 나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나 만3세에서 만5세의 유아교사를 포함하고 있는 보육교사 보다 상대적으로 유아교사에 있어 직무만족요인이 심리적소진을 경감 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 관련 정적효과요인인 우울과 이직의도요인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효과크기는  $-0.492$ 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별 효과크기 역시 우울과 이직의도 모두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만[11]의 연구에서 이직의도가  $.429$ 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이직의도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의 정적효과요인으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아교사의 소진이 결국, 직업에 대한 신념과 개인적 가치를 떨어 뜨려 결국 교사로서의 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교사 개인 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새롭게 유아교사로서의 길을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예비교사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리적소진을 억제하고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관련하여 필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수립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심리적소진의 정적효과요인으로 우울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인 것은 우울 자체의 부정적 증상 즉, 삶에 대한 의지나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높은 자살율과의 높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아교사의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서 제시된 방안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또한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상문제요인군이 부정적관계요인군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직장 내 부정적관계요인을 경

감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상 유발되는 다양한 문제들, 지나친 업무량과 그로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관계 당국의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적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원장과 교사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또한 필요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셋째, 직무만족은 직장에서 교사로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상태(pleasurable or positive emotional stat)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55],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부여[56], 교사로서의 신념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57] 등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을 예방하고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추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유아교사를 개인특성 즉, 성별, 연령별, 경력 및 직위별로 구분치 않고 한 단위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한 연구가 누적된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특성에 따라 요인별로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과 비교 가능한 만0세에서 만2세를 담당하는 영아교사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준에 적합한 자료만을 선정하므로 1차 선정 자료 가운데 상당수의 자료가 제외되어, 소수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량의 연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 개발을 통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결과 제시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Kim, Hyun-Jeong, "Perception pattern analysis of current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n :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20, No.1, pp. 209-234, 2018.
- [2] Government of Korea, "2016-2020, The third basic plan of low birthrate and aged society - Bridge plan 2020", 2016.
- [3] Lee, Soeun, Kim, Meena, "The effects of child care servic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3, pp. 25-43, 2017.  
DOI: <https://dx.doi.org/10.20437/KOAECE22-3-02>
- [4] Choi, Boon-Hey, Lee, Chang-Won,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irth encouragement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Social Economics and Policy Studies, Vol.7, No.1, pp. 187-213, 2017.  
DOI: <https://dx.doi.org/10.22340/seps.2017.02.7.1.187>
- [5] Kim, Dae-Chul, "Effect of the child benefit on the increase of the total fertility rate", Financial Policy Bulletin, Vol.20, No.2, pp. 3-25, 2018.
- [6] Kang Hye-kyeong, Mun Hyuk-jun, "Analysis of the influences of job environment and types of infant education agencies on infant teachers' role performance ability -Focus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ncies typ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8, No.1, pp. 79-113, 2018.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1.004>
- [7] Chae, Young-Ran, "Effects of the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of preschool teacher: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burn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 Vol.20, No.4, pp. 27-46, 2016.
- [8] Kang, Min-Jung, Kwak, Jung-In, You, Hee-Jung, Cha, Young-Sook,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teaching flow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8, No.1, pp. 29-52, 2018.  
DOI: <https://dx.doi.org/10.18023/kjece.2018.38.1.002>
- [9] Lee, Kyung-Min, Park, Ju-Yeon,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and Job Related Variables of Kindergarten Teachers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5, No.6, pp. 33-48, 2015.  
DOI: <https://dx.doi.org/10.18023/kjece.2015.35.6.002>
- [10] Maslach, C. & Jackson, S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2, No.2, pp. 99-113, 1981.  
DOI: <https://dx.doi.org/10.1002/job.4030020205>
- [11] Lee, Young-man,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eachers' Psychological Burnout",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5, No.4, pp. 441-459, 2016.  
DOI: <https://dx.doi.org/10.15812/ter.55.4.201612.441>
- [12] Kim, An-Na, "The mixed methods research on childcare teachers burnout related variable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8.

- [13] Kang, Min-Jung, You, Hee-Jung, Kwak, Jung-In, “A study on burnout and relationship of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0, pp. 637-667, 2017.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7.17.20.637>
- [14] Suh, Ji-Young, Suh, Young-Sook, “Influential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of Korean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4, pp. 229-251, 2002.
- [15] Hong, Kil-Hoe, Jung, Hye-ji, “Effect of preschool teacher’s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burnou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 No.1, pp. 263-280, 2013.
- [16] Kwon, Jeong-Yoon, Chung, Mi-Ra, Park Su-Kyoung, “The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and burnout of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5, pp. 251-266, 2013.
- [17] Koo, Hyo-jin, Kim, Min-yeong, “A study on the resilience and burn-out of the teachers in public preschools according to their personal variable”,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16, No.1, pp. 135-160, 2016.
- [18] Lim, Hae-Eun, Kwon, Yeon-Hee, “Effects of job stress and resilience on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burnout”,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Vol.37, pp. 53-80, 2015.
- [19] Son, Ick-Gyo,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labor on their burnout”, *Th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2.
- [20] Song, Ji-Ye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urnout and recovery resilience in regard to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lab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6.
- [21] Chung, Yu-Jin, “The impact of emotional labor of child teachers on burnout : focusing on the job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7.
- [22] Lee, Soo-ryun, Lee, Jeong-hwa, “Kindergarten teachers’ burnout and ego-resiliency based on their teaching experienc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0, No.6, pp. 51-66, 2010.
- [23] Oh, Hyun-Suk, Paik, Young-Suk,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burnout and instructional creativity in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6, pp. 31-53, 2015.
- [24] Kim, So-Yeo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ield problem awareness 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6.
- [25] Woo, Soo-Kyeong, Kim, Ki-ye,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Teacher-efficacy, and Job-burnout by Personal Background”,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5, pp. 105-125, 2015.
- [26] Kwon, Na-Yeon, Lee, Hee-Yeong,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Factor of Job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3, pp. 199-218, 2012.
- [27] Lee, Kyung-Mi, “Teacher’s Development of Teacher Efficacy, Professionalism, and Burnout according to Kindergarten Evalu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5.
- [28] Kwon, Hwa-Sook, Kim, Yi-Young, “Influence of Factors Originated from Demographic Fac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ork-Related Factors on the Intention for Turnover of Kindergarten Teachers”,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Vol.8, No.1, pp. 55-75, 2015.
- [29] Jung, Hye-Young, Lee, Kyeong-hwa, “The Path Model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urnover Intentions with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Burn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8, No.3, pp. 159-181, 2014.
- [30] Bae, Young-Sun, Kim, Ja-Kyoung, Kim, Ju-Young, “A Study on Recognition difference among Social Support, Burnout of the Integrated Class Teachers and The General Class Teach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17, No.2, pp. 115-124, 2008.
- [31] Kim, Pil-Yeon, Cho, Sung-Je, “The Effect on Self-Esteem according to job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Exhaustion of kindergarten teach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ol.8, No.2, pp. 169-177, 2015.  
DOI: <https://dx.doi.org/10.17661/jkiect.2015.8.2.169>
- [32] Kim, Eui-Joong, “Factors that affect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 Compared with Kindergarten teacher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7.
- [33] Moon, Dong-Kyu,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c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1.
- [34] Littell, J. H., Corcoran, J., & Pillai, V,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18, No.5, pp. 525-526, 2008.
- [35] Oh, Seong-sam, “Meta-analysis : theory and practice”, *Kon-kuk University Press*, 2002.
- [36] Hwang, Eun-Kyoung, “A study on the nature of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 with regard to teacher’s background and kindergarten situation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e-Gu University*, Master’s degree, 1996.
- [37] Kim, Mi-ae,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play for overcome burnout of novice play therapists”, *The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8.
- [38] Hong, Soon-Duck, “The effect of service providers’ resilience and burn out according to the culture empathy on customer orientation :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Graduate School of Je-ju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8.
- [39] Maslach, C. & Jackson, SE, “Maslach burnout inventory : Manual (2nd ed.)”, *Palo Alt,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6.

- [40] Hwang, Eun-Kyoung, "A study on the mature of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 with regard to teacher's background and kindergarten situation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e-gu University, Master's degree, 1996.
- [41] Chang, Hye-Ju, "A study on difficulty in task performance and burnout experienced by teachers in a public kindergarte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8.
- [42] Kim, Jung-Suk, Choi, Tae-Jin, Lee, Hee-Yeong,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of Risk Factors of Job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 427-441, 2011.
- [43] Choe, Hyung-Sung, "The Effects of Resilience,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on Intention To Leave of Infant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1, No.3, pp. 129-149, 2017.
- [44] Shim, Ui-Bo, "A meta-analysis of school maladjustment : focused on related triggering variables and the protective variabl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5.
- [45] Kim, Su-Jin, "A meta-Analysis on the elementary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factors and Victimization factors",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7.
- [46]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1988
- [47] Duval, S. J. & Tweedie, R. L.,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Vol.56, pp. 455-463, 2000.  
DOI: <https://dx.doi.org/10.1111/j.0006-341X.2000.00455.x>
- [48] Orwin, R. G.,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Vol.8, pp.157-159, 1983.  
DOI: <https://dx.doi.org/10.2307/1164923>
- [49] Noh, Pill-Soon,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social workers' burnout : focused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c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14.
- [50] Moon, Dong-Kyu,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protective variables of childcare teacher's turnover intention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8, No.1, pp. 25-44, 2012.
- [51] Chung, Myung-Sun,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33, pp. 183-204, 2013.
- [52] Kim, Eun-Hwa, "The relations among kindergarten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4.
- [53] Kim, Hyue-Jung, "The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limat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occupational stress in the kindergarten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1.
- [54] Kim, Goo-Young, "Occupation stress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Methods to coping the stres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1.
- [55] Lee, Hyang-H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teach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job satisfaction in the kindergartens", The Graduate School Ew-ha University, Master's degree, 1997.
- [56] Seo, Mi-Ye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Kindergarten Principal's Support to Kindergarten Teacher's Development,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Master's degree, 1997.
- [57] Koewn, Young-Ja, "Study on DAP education belief, teacher efficacy and work satisfac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nursery school teacher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09.

문 동 규(Dong-Kyu Moon)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 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복지, 상담, 영유아교육